養鷄業 환경여건의 調整

정 진 국
(오진양행 대표)

양계업은 닭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최대한으로 발휘시켜 인간사회에서 그 경제성을 활용하는 하나의 경제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계인은 양계를 영위하는 사업가이며 닭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닭의 생산성을 수익성과 직결시켜 항상자체 수익성 제고에 허술함을 보여서는 안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경 요건을 좁은 범위에서 온도 습도 그리고 환기의 세가지를 생각할수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요건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예를 들어 보면, 계사의 구조, 사양관리방법, 관리인의 출입회수, 채광방법과 그 양상 등 이러한 것이 모두 닭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닭 그리고 모든 가축이 소요로 하는 공기의 양을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계사나 축사의 크기와 넓이가 모두 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출되어 보다 비경제적인 크기의 계사나 축사를 건축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비생산적인 좁은 계사나 축사를 건축하므로서 보다 낮은 생산성의 양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협소한 계사라도 신선한 공기로서 소요되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건축비를 투입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호기성 혹은 음기성 병원체와의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양계환경의 합리화를 위한 투자는 그 투자효율면에서 또 수익성의 보장면에서 볼 때 무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가금이나 가축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그 생체중에 따라 사료의 급여량이 증감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없어서는 안될 공기에 대하여는 아마도 그 지식이 그리 정확하지 않은것 같다. 생체중이 증가됨에 따라 소요 공기의 양

은 증가되지만 같은비율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생체중 약 2kg의 가금이나 가축이 소요로 하는 공기는 분당 약 4개 m^3 이지만, 생체중 20kg에 대하여는 약 26 m^3 의 신선한 공기가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기의 양만이 문제되는 것은아니며 그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닭이나 가축의 위생과 방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계사내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닭의 체온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닭이나 가축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생산성과 사육자의 수익성과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계사내외의 온도와 닭의 체온 사이에 심한 온도 차이가 있다면, 계사내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았을 때에 닭의 사료 섭취량이나 , 호흡 그리고 호흡기질환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생산성과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닭의 체내로 투여되는 물질은 공기뿐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료와 물이 있다. 이 사료와 물은 항시 대기중의 여러 병원체로 부터 오염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조류, 곤충류, 들쥐나 집쥐, 쪽제비를 비롯하여 미생물등으로 부터 보위(保衛)되어저야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양계장에서 지하수를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 지하수를 아무 처리 없이 장기간 급수하였을 경우에 두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 하나는 불행히도 사용되는 지하수와 계사내의 온도와 기타 여건으로 보아 급수기와 그 주위에 각종 미생물의 棲息이 예상된다. 이때에는 가금의 질병발생의 문제점과 "니플" 과 같은 급수기의 급수기능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그 급수기가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급수기가 분뇨 오염될 경우는 그 위해로움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급이문제에 있어서도 급수장치나 시설과 대동소이하지만 문제의 심각함은 더한것이다. 공기나 물은 그 공급가격이 극히 저렴하므로 무시되거나 경시되고 있지만 사료에 대하여는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념상으로 중요시하고는 있으나 그취급이나 관리 등 실천하는 행동 작업은 소홀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도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띠는 상황이다.

모이통에 모이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으며 그 양상은 어떠할까? 분뇨에서 또다를 위생적 차원에서 잘 보위(保衛)되여 있으며, 과연 병균으로 부터 완적히 격리되어 훼손율의 극소화와 제한 및 계획급여 등이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직결되는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배설되는 분뇨처리문제도 중요하다. 분뇨야 말로 오염원이다. 이 분뇨의 제분작업 또한 작업중의 문제작업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작업을 점등작업과 같이 "타이머"로서 작업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면 양계업의 관리와 경영이 보다 용이해지고 밝아 질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모든 환경 여건의 조정과 조절행위나 작업은 인력을 투입하므로서 해결되는 부분도 적지 않겠지만 그와는 차원이 다른 면에서 생산성, 수익성을 제고시킨다고 강조하여 두고 싶다.

그러므로 환경조정장치는 양계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그 경영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력의 성력화를 도모한다는 의의는 그 한 부문에 불과한 것이다.